

눈길끄는 특·특·행·정

# 책값 돌려주고 지역서점 살리고

### 남원시, 이달부터 개인 구매 도서 공공도서관이 매입 코로나19 여파 대출 어려움도 해소...독서 확산 기대

남원시는 지역 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공도서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도서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기획됐다. 남원시는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자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한 달 내 남원시립도서관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도서 구매 증빙서류와 함께 가져오면 된다. 남원시는 시민당 최대 2권까지 도서의 구매가격 만큼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남원시는 구매한 책을 해당 도서관에 배치하거나 중복되면 작은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소규모 아파트 시가 통합관리

### 군산시, 3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시설보수·관리 서비스 등 시범 관리

3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군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군산시는 '공동주택 통합관리소'를 만들어 관리주체가 없는 낡은 소규모 아파트를 시범 관리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가운데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은 1·3동과 소룡동에 있는 27개 단지다. 통합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기본 안전점검과 시설 보수, 관리 서비스 등을

한다. 이를 위해 금광동 삼성아파트 상가 지하층에 통합관리사무소를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반응이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여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 동호해수욕장 '밤의 해변'으로 변신

### 모래사장·소나무 숲 등에 20억 투입 경관조명 설치

고창 동호해수욕장이 '밤의 해변'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고창군은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말까지 20억원을 들여 동호해수욕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고창군 제공>

'빛, 색, 물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제로 진행될 이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백사장에는 다채로운 컬러 조명이 설치돼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각한다. 동호해수욕장은 밤이 폭풍 빠지는 모래사장이 아니라 트랙터가 다닐 정도로 백사장이 단단해 밤에도 사뿐하게 산책하기 좋다. 특히 수령이 100년 넘어 보이는 정이품송급 소나무 숲과 바다에는 은은한 특수조명 레이저를 비춰 감성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 사업

이 고창군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 개발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전병곤 덕산 대표 등 6명 익산 '시민대상' 수상



전병곤 대표 김영규 지회장 송현섭 원장 손민자씨 김근섭 이사장 송태규 교장

익산시는 지역을 빛낸 인물에게 주는 '익산 시민대상'의 부문별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자는 산업대상에 전병곤(67) 덕산 대표이사, 문화체육대상에 김영규(72) 한국예총 익산지회장, 사회봉사대상에 송현섭(64) 소아청소년과 원장, 효행대상에 손민자(54)씨, 농업대상에 김근섭(71)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 교육대상에 송태규(59) 원광중학교교장 등이다. 이 상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주는 것으로 올해 25회째를 맞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남원 운봉 파프리카 40t 일본 첫 수출...연말까지 1000t 예상

남원 운봉에서 생산된 고랭지 파프리카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다.



남원 운봉농협은 지난 3일 운봉에서 생산된 고랭지 파프리카 40t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운봉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한 파프리카를 대형유통매장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운봉 고랭지에서 40여농가가 연간 3000여의 파프리카를 재배·생산하고 있다. 올들어 처음으로 40t(5kg들이 8000박스) 1억원 규모의 파프리카를 지난 3일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연간 약 1000t(30억원)의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한다. 남원 운봉 고랭지 파프리카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실시하는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수출단지로 지정됐다. 현재 수출물류비와 전문가초청 수출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중 해외유통매장에서 남원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쾌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순창 중앙로에 문화공연장 '중앙쉼터' 조성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마감해진 순창 중앙로에 중앙쉼터를 조성했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읍 중앙로는 관공서와 상가가 즐비해 순창군민 대다수가 즐겨 찾는 중심 변화가다. 이 곳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군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되고 가로수까지 새롭게 정비해 중앙로 전체가 깔끔해졌다. 특히 기존의 순창읍 농민 상담소로 쓰였던 공간을 허물고 문화 공연장인 '중앙 쉼터'를 조성, 도심 속 휴게공간과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탈바꿈했다. 48㎡의 소공연장과 조형물, 벤치를 조성해 중앙로를 오가는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관람하고 쉬어갈 수 있게 했다. 중앙쉼터는 순창지역 문화예술 동료인이 자신들의 끼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름철 중앙로축제도 열 계획이다. 또 청소년 문화 감수성을 엮을 수 있는 문화공연도 풍성해질 전망이다. 순창군은 오는 18일부터 중앙쉼터에 지역 문화 예술 동호회원을 활용한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kwangju.co.kr

# 정읍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시민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읍시는 오는 7월까지 상동 샘골보건지소 3층에 다양한 측정 장비를 갖춘 센터를 개소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 교실 운영, 체력인증서 발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